

2008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아동기사회복지인식긍정적 변화유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적 영양·위생관리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영·유아 교육시설과 유치원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시범운영한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비를 포함한 5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돼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 등 3개팀 1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이달 중에 출범한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의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위생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급식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주도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영양사가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영·유아 교육시설 및 유치원 152곳의 급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한편 이에요,

따뜻한 마음씨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달 중에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안내공문을 발송해 희망학교 접수를 받아 다음달부터 복지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원을 받는다.

2008년 시작한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은 지난해

까지 38개 초등학교 4349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이해', '장애인의 이해', '노인의 이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등 4회기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의 이해' 과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실시 이전과 이후에 같은 문항을 가지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는 질문에 교육 전에는 4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교육 후에는 67.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를 보였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5.8%에서 58.3%로 갑절 이상 증가해 사회복지에 일부 선택적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선별적 서비스라는 생각에서 나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인식하게 되는 등 큰 변화를 보여줬다.

'장애인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와 '장애인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질문에 각각 16.3%포인트, 8.3%포인트의 인식변화를 보여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노력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초등학생 복지교육 강사 전혜숙씨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희망의 시간들로 채워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다지는데 밑거름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초등복지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복지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도전!

"당신의 귀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제주의 브랜드를 높입니다."

■ 인터넷 투표: www.new7wonders.com

■ 전화투표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통화료 130원 부과)

001-1588-7715 연결 후 영어멘트가 끝나고 '빠' 소리 이후 **7715 (제주코드)** 누르면 감사멘트 (종료)

지면소개

- 종합 2·3면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계획 확정
시설 탐방-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소식마당
희망네트워크 동지·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권법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탐 초·중·고 전문학원

학부모님들이 교육효과에 100% 놀랍니다.

(부설교육)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몰입교육

차일드 유 영어교실

English

원장 고 경 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온누리봉사회 초대 회장 / 손뜻모아봉사회 2대 회장

제주시 화북1동 1239-6
연락처. 722-3553, 721-8553, 017-691-3553

2014년 무상보육 전면 실시

道, 출산율 2.0 플랜 1단계계획 확정...3900억 투자

2014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또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1단계 계획은 2014년까지 '지속 가능한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5대 핵심 과제에 3900여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0~5세 영유

아 무상보육은 올해 소득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2014년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3년 이후 정부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말 현재 198개인 시간연장형 야간돌봄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250개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운영형태도 반일제와 종일

제 등으로 다양화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시간의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처우개선비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가임여성 등에 대해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 차액(1%)을 보전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2곳을 설치 운영한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해 올해 회당 180만원에서 2014년엔 회당 3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시설 사용료·이용료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2월 7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서 참가자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주도 장애인 1035명 일자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9억1100만원을 들여 10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9억6700만원을 투입, 8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고용장려금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복지일자리 분야는 주차단속보조, 환경도우미, 동료상담 등으로 7억8000만원이 투입돼 408명을 고용한

다.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되며,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행정도우미는 행정사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업무를 보조한다. 5억7800만원을 투입해 52명에게 월 85만 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제주도의 특수시책 사업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696명에 61억4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575명에 15억5300만원을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20만~5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 지원

제주시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사업(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제공시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 청소, 식사 등 가사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바깥나들이와 같은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환경과 중증 정도에 따라 월 40~100시간의 서비스

가 제공되고, 혼자 살면서 활동보조 없이는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고 180시간까지 지원된다.

중전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돼 활동보조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65세를 맞은 경우도 65세 이전 인정등급이 적용돼 월 최대 7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보조인들이 담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 밖의 경우는 월 4만~8만원이다.

활동보조인에게 월 80여만원이 지급된다. 투입 예산은 22억6000만원이다.

이 사업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9년 297명, 지난해 314명이다. 올해는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道사회복지시험회장에 한형범씨 당선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험회장에 한형범(사진) 현 회장이 당선됐다.

제주도사회복지시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희수) 주관으로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2월 24일 실시된 회장 선

거에서 한 회장이 당선됐다.

한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법적 위상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 전문교육 내실화, 소통하는 협회,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조직 활성화,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기금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일배움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수행기관 선정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을 목적으로 직업활동프로그램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훈련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일배움터는 다양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향후 일반사업장 및 보호작업장으로 전이돼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허철훈 계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허철훈(사진) 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사회복지주사)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적자료를 통한 수급자 결정을 통해 지자체 복지행정 효율화는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8만여명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자료정비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한편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한성순·양일경 주무관,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양정금 주무관,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김범석 주무관(이상 사회복지주사보) 등 4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제주시가 올해에도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제주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114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현대·삼다 등 3개 자동

차운전전문학원과 협약을 체결, 위탁학원으로 지정했다.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1·2종 보통 운전면허는 60만원, 대형면허는 35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 취득시까지 비용이다.

한편 제주시는 2009년 26명, 지난해 20명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제가결연후원	570,000	57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50,000	450,000
복지사업후원	1,190,000	329,450
푸드마켓후원	1,645,000	645,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40)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저만치 떨쳐내고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2월 하순,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 이하 우리동네)를 찾았다. 2003년 무료 공부방으로 문을 연 이후 2005년 6월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받았다.



안명희 센터장
“부모등 가정역할 중요”

우리동네에 들어서자 20여명의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오전부터 우리동네를 찾아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 곳의 아이들은 우리동네를 집과 같이 편안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안명희 센터장은 “우리 센터를 찾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 아동”이라며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 아빠의 역할은 물론 가정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동네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42명, 정원은 29명이지만 우리동네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 모두 받았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동네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들도 우리동

네를 이용할 수 있게 문을 넓혔다. 우리동네는 당당하게 자기의 생각을 펴는 아이들, 건강한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아이들, 자신감 있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방인 및 방치 아동보호, 급식, 의료지원 등 보호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권리교육, 사회적응력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 견학, 캠프 등 문화프로그램 ▲과학·민요교실 등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등 주변에 위치한 센터들과 함께 합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을 받는 ‘초딩, 자전거로 제주를 놀러다’는 6개 지역아

동센터 40명이 참가해 6회에 걸쳐 구간별로 연습한 뒤 9월에 제주도 일주를 할 예정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는 ‘뽕밭을 막치고 하늘로 날다’는 4개 동아리(사물·연극·여행·댄스) 운영을 통해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의 문화적·경험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적은 운영비를 쪼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힘이 부치는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숨은 후원자들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한 태권도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동네 아이들 15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관광버스타는 야외 나들이 행사에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센터장은 “수년간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며 “주변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지공예 등 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해마다 열고 있는 인인찾담은 이제 부모들이 직접 기획안을 세우며 주도한다. 안 센터장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이혼 등으로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많다”며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것 또한 우리동네의 역할”이라고 했다.



노인요양시설 '포화' 신축 제한

복지부 권장기준 초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현재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이 보건복지부 권장기준인 노인인구의 2~3%를 초과함에 따라 신규 시설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48곳(제주시 35곳, 서귀포시 13곳)이다. 2007년 26곳에서 2008년 28곳, 2009년 35곳, 2010년 48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입소정원은 도내 노인인구의 3.5%인 2405명(제주시 1720명, 서귀포시 685명)으로, 보건복지부 권장기준을 초과했다.

제주도는 올해 2곳(정원

180명)이 신축되고, 2곳(정원 41명)이 증축되면 수용능력이 더욱 늘어나 당분간 노인요양시설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2010년말 현재 입소율이 90%(정원 2405명, 입소인원 2170명)에서 올해 말에는 82.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신축가능지역인 한경면 1곳을 제외하고는 신축을 억제하고,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장기요양등급 세분화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신축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노인요양기관이 부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해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사업에 5억8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억여원을 지원했다.

우선 3200만원을 들여 언어영재교실을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을 통해 2개 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또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

로 이중 언어, 통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이탈을 예방하고,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1개 센터에서 올해에는 2개 센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 활용능력과 학교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도사가 언어발달 정도와 발음 등을 진단해 교정하는 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 한국어 교육과 자녀 학습지도, 가족상담 등을 하는 방문지도사를 지난해 24명에서 올해에는 39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

단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는다.

고운맘 카드는 분만 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1일 사용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1일 사용한도액을 6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모금회 사무처장에 서영숙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이동건)가 2월 1 일자로 전면 적인 인사를 단행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 제주 모금회 서영숙(사진) 부장을 임명했다.

제주모금회 강화봉 사무처장은 중앙회 배분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16 개 지회 가운데 대구·경북 지회와 광주·전남지회, 대전·충남지회 등 6개 지회를 3개로 통합했다.

또 충북지회와 제주지회는 사무처장을 1급 직원에서 2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인원감축 및 조직 슬림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교체를 단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해 복지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의 벽 허무는 '화합의 향연'

서귀포시가 일반가정 자녀들 비롯해 다문화가정 자녀, 저소득 청소년들이 아우러지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창단했다.

2월 19일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창단식은 단장과 지휘자, 감사, 단원 및 부모, 다문화가정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세계적 지휘자 금난새의 헌악 4중주, 서귀포합창단의 축하공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단장에는 서귀포음악학원연합회 김영진 회장이 위촉돼 3년간 활동하게 됐다. 지휘자와 감사도 위촉돼 본격적인



합주연습이 가능해졌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합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창단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난새 지휘자에게 자문을 구했고, 창단식에 명예지휘자로 초청했다. 금난새씨는 창단식에서 헌악4중주 축하연주를 지휘했다.

오케스트라는 올 하반기에 비서관과 읍면지역 등을 찾아다니며 작곡음악회와 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앞으로 단원 선발에 있어서 다문화, 차

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1월 농어촌희망재단의 공모사업 단체로 선정돼 3년 동안 해마다 2000만원의 운영비와 올해 악기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 다문화 가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됐다.

서귀포시는 금난새 지휘자와 지속적인 교류와 자문을 통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농어촌희망재단의 모범 운영단체로 육성하는 한편 연습실과 악기보관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식/마/당

아리주공아파트신묘년 단배식



아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2월 8일 복지관 경로당에서 주택관리소 및 지역 자생단체 등과 함께 신묘년 단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리주공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세배를 올리고 떡국을 제공했으며, 장기자랑 등으로 소외감을 갖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 홍보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2월 14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및 인터넷 투표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새봄맞이 작은 음악회



서귀포해피사운드색소폰동호회(회장 김성채) 회원들은 2월 19일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새봄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해피사운드동호회는 노사연의 '만남' 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합주곡을 선보였고, 마지막에는 장애인들이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중·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3월 중·고등학교 입학할 앞둔 도내 가정위탁 보호아동 10여명에게 교복과 체육복 일체를 지원했다.

이번 교복지원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신한은행의 '따뜻한 설빔(교복)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교복업체인 스마트 제주점은 체육복을 후원했다. 현재 도내 위탁아동은 284세대 386명이다.



제주항공의 훈훈한 사랑 나눔

(주)제주항공(대표이사 김종철)은 2월 1일 노년 어러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제주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부)에 기탁했다.

제주항공은 1월 29일 자신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필리핀 기아를 돕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평소에도 교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종합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 호응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매월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피아노·미술·동화구연·종이접기 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동화구연과 종이접기교실은 유치1반(5~6세), 유치2반(6~7세), 초등반 등으로 구분해 아동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아이들이 저마다의 특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미술교실을 수강 중인 박태양(10) 어린이는 “미술교실에 다니기 전에는 미술이 재미없었는데, 여기에서 공룡과 사자를 자



주 그리면서 이제 미술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혼자 그릴 때보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라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피아노교실과 종이접기교실을 운영해 성인들이 각자의 취미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알림/마당

■ “노인일자리사업참여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제주시니어클럽은 오는 4일까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제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협약에 따른 이번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소득창출은 물론 사회참여기회를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과 견형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공익형에는 초등학교사서도우미, 교육형에는 시니어관광도우미와 시니어교육강사, 복지형에는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탄, 아동·청소년지킴이, 교육안전귀가도우미 등이 있다.

또 시장형에는 한울한판, 1·3세대체험학습장, 시니어 손맛집(식당), 한울공동작업장, 실버카 ‘행운이오는 집’, 인력파견형에는 시니어간병사업단, 실버인력뱅크, 시험감독관 파견, 시니어인력뱅크(농기도우미) 등으로 구성됐다.

문의=745-3998~9.

■ 노인학대예방교육10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오는 10일 제주시 연동 탑 365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의=757-3400, 홈페이지=www.jejunoin.org.

■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서귀포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인 수화교실인 ‘사랑의 수화교실’을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에 위탁해 운영한다.

오는 3일부터 기초반과 중급반을 동시에 개강해 10주 동안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강의를 이뤄진다.

사랑의 수화교실은 199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9년에는 수료생 25명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문의=733-681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기총회 개최

2월 17~18일 대명리조트서 세계 7대경관 투표홍보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배윤규)는 2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대명리조트에서 ‘2011년 정기총회 및 관장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최홍석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이 ‘2011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특강을, 미래사목연구소 차동엽 소장은 ‘창조적 리더로서의 사회복지조직관리 ‘바보 zone’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용철 복지청소년과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세계 7대자연경관에 제주

도가 선정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투표참여를 홍보했다.

이 과장은 “스위스 비영리재단인 더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가 오는 11월 11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과 전화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세계 7대자연경관에 제주가 도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투표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진행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1월 29일 제주시 한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심리, 정서, 건강, 학습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희망네트워크 ‘동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위치한 ‘민거나 말거나 박물관’을 관람하고, 대정읍 도예촌 산경도예에서 가족 머그컵 만들기를 진행하며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고 있어 주변의 걱정을 샀던 고민혁(가명)군은 “선생님, 다음에는 우리 스키장으로 가요”라며 즐거워했다.

특히 프로그램 내내 일전에 보지 못했던 밝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희망네트워크 ‘동지’ 사업을 통해 개별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시 한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 생활환경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주민 조직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례관리, 사회복지서비스지원,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참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796-9091~3.



도지체장애인협회 정기총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는 2월 21일 탐타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사업 결산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및 감사 선출 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감사에는 오형범·임경윤씨가 각각 선출됐다.

또 제주시지회 김대원 지회장과 서귀포시지회 강유민 지회장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김현식 부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제주도내 최다 회원 장애인 단체로서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내고 협회 위상을 빛낼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더 나은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표어·포스터·글짓기 시상

제주장애인아간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표어·포스터·글짓기 작품을 공모하고 1월 26일 수상자들에게 시상식을 가졌다.

제주장애인아간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131학급에 장애인 강사를 파견해 장애·차별·편의시설·자립생활 등의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은 부문별 시상자 ▲최우수상 ▲표어=김재현(제주서초 4) ▲포스터=문준용



(아라초 5) ▲글짓기=오희영(하귀초 6) ▲우수상 ▲표어=김성민(제주서초 4) ▲포스터=문유지(제주서초 5) ▲글짓기=양형욱(아라초 6) ▲장려상 ▲표어=김수민(동화초 4) ▲포스터=양지효(제주서초 3) ▲글짓기=김세연(한라초 6)

758 1377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60kg ▲서문식품=두부 288모 ▲김치원=김치 45kg ▲푸른축산물판매장=돈육 15kg ▲유진상사=식재료 142개 ▲햇살상사=식재료류 1361개

창암재활원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생활인들이 방학을 재미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1월 한달 동안 눈썰매, 네일아트, 외식체험, 체육활동,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체험을 통해 시설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칼럼

사회복지논쟁(社會福祉論爭)



문익순
제주4·3사업소장

국가의 행정작용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복지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회복지는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는 제도이다.

선택적·보편적 복지 상호 보완

사회복지의 또 하나의 목적은 국민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자립을 추구하는데 있다.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일이다. 결국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회

의 복지가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부조와 인보사업 등의 전통적 사회복지자원을 넘어 문화예술펙토링사업 등 복지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은 사회복지영역이 확대, 다변화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전문기관으로 업무가 많이 이양되는 추세이다.

요즘, 정치권에선 사회복지논쟁이 뜨겁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이다. 두 제도는 그 기반부터 다르다. 선택적 복지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복지제도의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또한 투자비용이 저비용이며, 사업의 주체는 민간전문가가 된다. 수급대상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말하는 낙인(烙印)은 심하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상의 변동에 따라 서비스의 변화가 유연하다.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이 좋다. 반면, 대상자에게 낙인이 존재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효율성은 낮지만 형평성은 높다. 또한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완충장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낙인이 없다. 그러나 투입된 비용만큼 산출되는 서비스가 효율적이지 않다.

국민 합의·국가재정진단 필요

또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변동에도 유연치 못하다. 그리고 정부개입이 시장경제의 변수가 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즉, 보편적 복지는 선택적 복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택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런 복지제도의 장단점 보완 문제와 제도의 선택에 앞서 우선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제도와 정책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문제를 신중히 진단해야 한다. 국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포퓰리즘(Populism)은 더욱 더 안 된다. 복지선진국의 사례와 교훈,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와 불확실성의 미래를 내다보며 진단할 수 있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기고

서로 돌보는 나눔 문화운동



안전영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집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보다 밝고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민생안정이 해결돼야 한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오늘에야말로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특히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긴요한 때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수재와 같은 자연적 재난이 닥칠 때 서로 돕고 사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를 극복했다.

세계화·정보화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은 더 말할 나위 없겠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복지지출, 엄청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물질적·금전적 도움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다. 봉급의 단 1%만이라도 기부하면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고 쌓이면 많은 액수가 되는 것이다.

이번 설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익명의 독자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생단체, 기관·기업 등 개인과 단체에서 3억 9000만원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하며 '나눔 문화 운동'에 동참했다.

이런 때일수록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두운 곳에 한줄기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실천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작은 나눔 큰사랑의 실천에 많은 채찍과 격려가

필요한 이유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돕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주시 공직자들도 2100여만원의 후원물품을 마련, 어려운 이웃들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기부와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게 한 의미 있는 동참이었다"면서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도 작은 것이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지"고 직원들은 다짐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론

경제정의를 지키는 것이 혁신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경제활동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태어나면서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소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을 생산·판매해 소득을 얻는다. 수익창출을 통한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은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며, 이의 중단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경제활동은 중병에 처해 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고통과 불행에 이용해 이익을 챙길 것인가에 대한 탐욕과 과욕만이 남치고 있다. 마치 먹느냐, 먹히느냐는 생사의 문제만 존재하는 야생동물의 세계와 흡사하다. 빵 하나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활동은 급속하게 승자독식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난하고 우매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빵 부스러기마저 용납하지 않는 양극화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억명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통계수치이다. 5초에 1명, 하루에 10만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경제 노예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물질만능주의 경제만을 고집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본과 상품, 노동력 중심의 효율성 경제구조가 큰 원인일 수 있다. 경제활동 참가자들에게 오로지 이윤 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경제구조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자들은 오로지 돈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심지어 돈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중독성으로 빠져들고 있다.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부패방안을 찾는다. 자기 이익이나 보호를 위해 불필요거래도 서슴없이 이뤄진다. 되레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이상할 정도다. 양심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사기는 물론 비리가 시장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한 도덕이나 정의의 가치가 살아 숨 쉴 공간은 거의 없다.

시장경제는 실패의 연속이다. 왜곡되고 신뢰를 잃어가면서 분열되고 있다. 그동안 이끌어 왔던 효율적 경제구조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 과다 등으로 비효율적 구조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즉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지원전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부채전쟁, 고용전쟁 등 갖가지 난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경제구조가 얼마나 잘못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끌어 왔던 경제방식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볼 때이다. 그리고 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질서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도덕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의이며,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 혁신이다. 기존의 효율에 바탕을 둔 경제개념에서 뛰어넘어 정의개념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행정은 합리적인 시각에서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모두가 물질만능주의 중독에서 벗어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즉 공공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처해 있는 양극화의 해소이며 복지의 지름길이다.

지난해부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다시 부각되면서 사회 이슈화되고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이런 목마름들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장애관련 9대 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장애인연금 대상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장애관련 9대 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정책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본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박은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박은수 국회의원은 장애관련 9대 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사진 제공=함께걸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어 철저히 의학적·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향에 있어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국제장애인연맹의 장애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즉 손상되지 않은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기적 조치로 의료적 이상·손상과 사회적·환경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이념을 구체적으로 강행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의 책임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재정부담의 원칙에서 국가가 임의적인 태도로 수급자, 민간법인 및 시설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자의 욕구가 귀속적 욕구로서 인정되지 않고 평가적인 성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이념 구체적 강행규정 필요 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 통합 고민해야

장애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복지성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국가의 재정지출이 강제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될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미 규정이 없다. 자립생활 모델의 정착이 본격화하려면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서비스의 주 공급자로서 공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은 서로 연계돼 있지만 두 법이 별개로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정책과 시행에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

이 있다. 건물 내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건물 밖을 나서면 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는 이중적인 법률구조는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의 연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편의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정책에서 공간의 이용과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놀라게 증가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율 증가와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은 비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편의증진 정책은 개개의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편의시설 설치 정책은 편의시설이라는 개개의 시설 중심의 접근방법이기에 연계성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가져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점으로서의 편의시설 설치 정책에서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개의 편의시설에 집중하지 않고 이용자의 이용흐름에 따라 불편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오래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편의증진법 설치 기준은 대부분 1994년에 제정됐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국인의 기본 체형을 바탕으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며, 전통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해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6년 전과 지금은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생활, 체형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달라진 변화를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연금법

장애급여의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중심의 장애등급체제로 개편돼야 한다. 이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본래 모습을 찾아주는 의의를 지닌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

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빈곤율을 볼 때 10% 수준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 국민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고 있어 경증장애인의 배제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일정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능력의 저하와는 별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따른 연금 수급도 가능해야 한다. 현 장애인연금 등급체계는 '노동능력 저하=소득능력 저하'라는 정의 하에 소득능력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를 측정하는데 있어 의학 평가에 의한 장애만으로 소득능력 저하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상생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수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의미하므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 등의 비용이다. 단순히 장애수당을 명칭 변경한 것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연금으로서 성격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가비용의 보존의 사회수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sign is
another Salesman

디자인은

또 하나의 세일즈맨

좋은 디자인은 상품에
고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회사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 열림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전정신으로 뭉친
젊은 디자이너들로 조직화, 전문화된
능동적인 팀입니다.

DESIGN YEOLLIM

디자인열림

팜플렛, 카달로그, 브로셔, 리플렛, 정기간행물, 패키지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82.64.746.0775 fax. 82.64.746.0774

